

블로그(Blog)의 도래와 블로그(Blog) 디자인의 전망

A Study on the advent of Blog and its Design Prospect.

이용주

동명정보대학교 정보대학원 컴퓨터그래픽 전공

Lee, Yong-Ju

Dept. of Computer Graphics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Technology

Tongmyong University of Information Technology

1. 서론

웹(Web)과 로그(Log)의 합성어인 블로그(Blog)의 사용자가 1천만 명을 넘어섰다.

이렇듯 이 블로그 현상은 블로그 운영자인 블로거(Blogger)간의 인적유대라는 독특한 네트워크로 생존방식을 터득해 나가고 있다.

블로거간의 '연대'를 통해 인터넷 영토를 서서히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블로깅'이라는 독특한 커뮤니티형식도 블로거간의 연대에 한몫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신의 취향에 맞는 블로깅에 가입하면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즉시 자동으로 블로깅에 그 글이 올라가게 됨으로써 기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의 커뮤니티보다 더 자율적인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블로그의 일반적 고찰을 통해 시대적 범주와 일반적인 개념, 특징을 파악하여 블로그 디자인의 미래를 전망하고자 한다.

2. 블로그(Blog)의 일반적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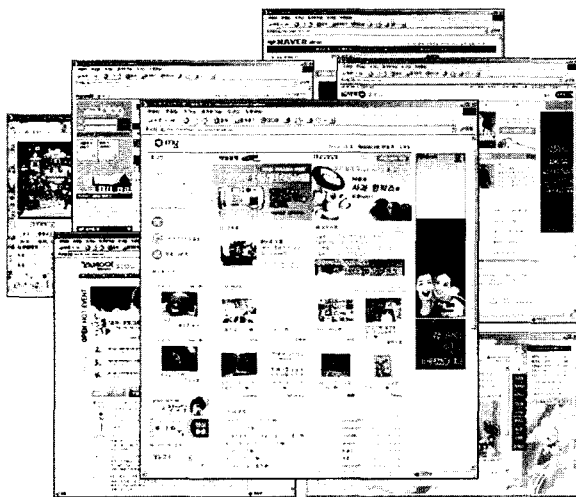


그림 1-1 국내 블로그 서비스들

2-1. 블로그의 정의와 개요

블로그 전문가인 레베카 블러드는 자신의 책에서 블로그 정의를 '딱 잘라 정의 내리기 어렵지만 써보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것 - Weblogs are hard to describe but easy to recognize' 1)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블로그(Blog)란 원래 웹(Web)과 로그(Log)의 합성어인 웹로그(Weblog)가 축약된 말로, 웹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 일상사 등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쉽게 말해서 자신이 작성한 글 (자신의 생각이나, 일상 또는 기존 기사거리에 대한 논평 등)을 쉽게 올릴 수 있는 웹 포맷 또는 웹 도구라고 보면 되겠다.

3. 블로그의 특징

3-1. 고유의 형식

웹 초창기 시절, 사실상의(de facto) 측정 단위는 페이지였다. 그리고 콘텐츠는 적당하게 형식화되었다. 온라인에서 물리적 페이지 크기를 만족시키기 위해 특정 길이의 콘텐츠를 만들 필요는 없었다. 웹이 성숙함에 따라 온라인에서는 페이지 패러다임(paradigm)을 넘어서는 고유한 온라인 형식을 작성하기 위해 개발에 노력을 기울였다. 웹로그(Weblog)는 크기가 더 작고 더 간결한 측정단위이며, 게시물(post)은 웹이라는 매체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빈번하게 갱신을 하고, 풍부한 하이퍼링크 텍스트를 제공한다.

보통 한 페이지가 주제 하나를 포함하거나 한가지 주제 항목을 다루는 부분이 여러 페이지에 걸치는 반면(단순한 의견, 에세이나 컬럼, 기술적 문서나 보도), 웹로그 게시물(Weblog post)은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완결된(self-contained) 주제 단위이다. 어떤 것은 문자 하나로 아주 짧을 수도 있고, 여러 문단에 걸쳐서 나열될 수도 있다. 반면 다양한 주제가 있을 경우의 웹로그 게시물은 이러한 여러 게시물들을 한 페이지에 모아 놓은 접착제 역할을 한다. 바로 이 단일 페이지가 웹로그와 온라인 조상인 홈페이지를 구별짓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인쇄된 페이지의 제약사항(또는 '페이지'라는 개념)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저작자는 이제 이전에는 글로 씌여지지 않고 사라졌을 짧은 생각을 블로그로 할 수 있다. 웹로그의 게시물 단위 덕분에 저자는 단어의 개수로부터 자유롭다.

3-2. 웹로그 게시물(Weblog post)

웹로그 게시물(Weblog post)은 다음과 같은 뚜렷한 특징으로

1) Weblogs : a history and perspective, *Rebecca Blood*, 2000년 9월 7일

다른 것들과 구별된다. 날짜 헤더(date header), 시간 기록(time stamp), 불변링크(permalink)가 바로 그것이다. 이 외에도 종종 저자들의 이름이 각 게시물 아래에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여러 저자들이 한 블로그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만약 논평을 허락할 경우(특정 게시물에 대해 응답하도록 독자에게 품을 제공한다면) 논평을 달 링크도 나타날 것이다.

링크

링크와 그에 따르는 논평은 종종 웹로그의 차별화된 특징으로 간주된다. 불변링크를 통하여 일어나는 연결은 우리를 엮어주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낸다. 논평(Commentary)만으로도 저널, 일기, 그리고 사설의 분야를 차지한다.

시간 도장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시간 기록(time stamp)은 시의 적절함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게시물들에 대하여 시간이 공개적으로 언급되기 때문에 웹로그 그 자체에 대하여 시간에 내포된 가치는 분명하다. 시간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독자들은 저자의 갱신 패턴을 감지할 수 없으며 경험을 공유하는 순간도 함께할 수 없다.

만약 여러분이 오후 3시 55분에 갱신한 페이지를 내가 4시 2분경에 방문했다면 이는 마치 우리의 통신 패킷이 공중에서 우연하게 마주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저자인 여러분과 독자인 내가 같은 시간에 '그 공간'에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와 같이 비슷한 시간에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경험은 강력한 연결 관계를 만들어 준다.

경험 공유의 순간은 강력한 연결자(connector)가 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 생면부지의 두 사람이 지하철에서 우연히 재미있는 게시판을 보고 깔깔거리다가 서로 공감하고 시선을 나누는 것처럼 이와 같은 상황은 온라인 세계에서 일어난다. 온라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경험공유의 순간은 내가 전자책 한 권을 사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동시에 방금 샀다는 글을 블로그에서 읽을 때 일어난다.

불변링크(Permalink)

불변링크(permalink, 블로그 모음실에 있는 게시물의 절대적인 위치에 대한 링크)는 저자들이 웹로그를 통해 분산된 대화에 참여하는 방법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불변링크(permalink)는 정확한 참조를 가능하게 해주므로 저자는 자신이 대응코자 하는 특정한 정보 조각에 링크를 할 수 있다.

만약 여러분의 블로그에 현재 열 개의 엔트리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그 중, 네 엔트리는 고양이에 관한 것이고 오직 한 엔트리만이 모질라 1.0의 배포와 관련된 불변링크(permalink)라고 할 경우 불변링크 덕분에 동료 모질라 블로거

들은 정확한 게시물을 참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블로그는 느슨하게 분산된 모질라 대화를 만들어 낸다. 불변링크(permalink)가 없다면 대화는 쓸모없는 고양이에 관한 대화로 가득 찰 것이다.

4. 블로그 디자인의 전망

플랫폼과 시스템에 있어서 블로그의 발전은 기능적 특징들을 내포하며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디자인에 있어서는 별다른 성과 없이 블로그 사용자들만 늘어 대량 생산 되어질 뿐이다. 인터넷 홈페이지 디자인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운영자가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사용자들에 맞게 디자인을 계획하고 수정, 보완해 나가는 반면 블로그는 그 기능에 매료 되었을 뿐 블로그의 기능에 상응하는 디자인이 되지 않고 있다. 이는 블로그로서의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결여된 것으로 블로그의 기능적 특징을 담은 메타포적 디자인이 되어야겠다.

기술의 발전에 의한 기능의 해결은 늘어가는 사용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킴에 있어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것의 해결방안으로서 디자인은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모호한 블로그의 특징을 반영하여 사용자로서 디자인이 가능한 솔루션의 개발에 의해 전개되어질 것이다.

5. 결론

블로거(Blogger)로서 우리는 통신의 진화라는 격류 속에 있으며 이를 즐기고 있는 중이다. 위에 언급된 웹로그(Weblogs)의 특징들은 언제든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도구들이 개선되고 테크놀러지가 성숙함에 따라 발전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페이지의 물리적 제한과, 편집자들의 간섭, 그리고 지겹게 느린 출판 시스템으로부터 자유로운 매체를 얻었다는 것이다. 자유로운 연설 그 자체처럼, 주장하는 내용보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 더 중요한 것이다.

매체 시스템으로서의 블로그가 인터넷 환경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블로그 디자인의 체계적인 확립과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매그 허리헌(Meg Hourihan), 역 전순재, 매그넷 칼럼: 블로그란 무엇인가?, 2002.7.24
- Rebecca Blood, weblogs : a history and perspective, 2000.9.7
- Paul Bausch (Author), Matthew Haughey (Author), Meg Hourihan(Author), We Blog: Publishing Online with Weblogs, John Wiley & Sons; 1 edition, 2002.8.8
- Douglas Rushkoff, Media Virus!: Hidden Agendas in Popular Culture, Ballantine Books; Reprint edition, 1996.2
- 코리 닥터로우(Cory Doctorow), 역 전순재, 나의 블로그(blog), 또 하나의 두뇌, 2002.6.24
- David Krieger, chromatic, Brian Aker, Running Weblogs with Slash, O'Reilly & Associates, 2002.1